

로마 대 비로마로 살펴보는 유럽 건축사

양진석의 유럽 건축사 수업
양진석 지음



양진석 건축가가 스케치한 산조르조마조레 성당. <와이즈베리 제공>



고딕 양식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와이즈베리 제공>

‘근대 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의 대표작 ‘빌라 사보이’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한 베를린 뮤지엄 아일랜드의 ‘제임스-사이먼 갤러리’는 고전주의 건축의 특징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꼽힌다. 조화와 비례를 중시했던 고대 그리스-로마 건축의 미학개념은 시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

하늘을 찌를듯한 첨탑이 특징 중 하나인 고딕 양식 역시 600년 전 건축된 쾰른 대성당과 함께 2017년 문을 연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830m)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에서 그 흔적을 만날 수 있다.

건축의 고유한 조형과 공간 개념의 바탕에는 시대상과 당대의 철학, 사상이 녹아 있다. 그런 점에서 건축의 역사를 들여다 보는 일은 그 시대의 핵심으로 진입하는 방법 중 하나다. 현대건축에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과거의 흔적들을 만나는 일은 흥미롭다.

TV 프로그램 ‘러브하우스’로 유명한 양진석 건축가의 새 책 ‘양진석의 유럽 건축사 수업’은 유럽의 도시와 건축물이 품고 있는 시대적 이야기와 다양한 양식을 소개하는 ‘유럽 건축 역사 안내서’다.

저자가 2000년의 유럽 건축사를 풀어가는 키워드로 삼은 것은 ‘로마 대 비로마’다. 그리스-로마의 고전주의에 근거한 ‘로마 양식’과 로마를 계승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 시대상을 반영해 진화하며 새로운 시도를 했던 ‘비(比) 로마 양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는 로마 양식의 특징으로 고전, 정형, 조화, 비례, 기하학, 균형, 안정을 꼽았다. 비로마 양식은 비정형, 이탈, 자유로움, 권위, 욕망, 퇴폐, 생동감, 장식성 등을 특징으로 들었다.

6장으로 구성된 책은 그리스-로마 건축, 비잔틴-로마네스크 건축, 고딕 건축, 르네상스 건축, 바로크-로코코 건축, 19세기 전후부터 현재까지의 건축 등 시대별로 건축 양식을 나누고 해당 양식의 대표적 건물, 이를 설계한 건축가의 미학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까지 조명한다.

자유로운 조형 사상이 특징인 바로크-로코코 양식은 르네상스 말기의 매너리즘 이후 등장했다.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 건축은 절대왕정의 궁전이 갖추어야 할 위엄과 장중함, 세밀하고 화려한 장식까지 갖춘 루브르 궁전과 베르사유 궁전을 들 수 있다.

타원과 자유 곡선을 활용한 역동적이고 화려한 외관을 특징으로 한 바로크-로코코 양식은 특히 ‘불거리’를 중시하는 현대 건축에서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프랑크 게리가 설계한 파리의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 자하

하디드의 작품인 카타르 알자누브 스타디움, 노먼 포스터의 런던 시청사 등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산업혁명과 함께 태동한 근대 건축의 흐름을 살피고 다양하게 변주되는 현대 건축을 소개한다.

CEO대상 강의를 기반으로 한 책은 재미있게 읽힌다. 특히 책에 수록된 180장의 건축물 사진과 함께 저자가 직접 스케치한 그림들이 보는 재미를 더한다. 각 장의 말미에는 개별 건축 양식의 특징을 키워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와이즈베리·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능력주의 시대, 교육과 공정을 사유하다=능력에 걸맞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능력주의(Meritocracy)’는 얼핏 당연한 가치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청년층 사이에서는 능력주의에 따르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책은 시험제도의 형평성과 지역 할당제,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을 통해 능력주의가 어떻게 불평등을 정당화하는지 보여주고, 또 공진과 협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안한다. <살림타·1만9000원>



▲자본주의와 페미니즘-엔 커드와 낸시 허스트롬, 두 석학의 페미니즘과 자본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이 부딪힌다.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의 엔 커드는 자본주의가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옹호한다. 반면 낸시 허스트롬은 자본주의가 여성 억압과 계급 착취를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한다. 각 저자가 주고받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자본주의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에코리브르·2만7000원>

▲공정한 기회: 모두에게 열리는 문 = ‘공정’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화두다. 많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공정한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

회라고 정의한다. 선관위 채용비리와 인건국제공항 채용논란, 로스쿨 등의 이슈들을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공정과 혁신이 동시에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바른북스·1만6800원>

▲무굴 제국의 역사=세계 인구 1위, 국민총소득(GNI) 2위, 국내총생산(GDP) 5위... 세계가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 인도에 주목하고 있다. 책은 도약하는 인도의 뿌리, 무굴 제국에 주목한다. 인도를 지배한 마지막 제국인 무굴은 힌두교와 이슬람, 수많은 언어와 민족이 뒤섞인 거대한 정치 실험장이기도 했다. 찬란한 문명부터 영국 식민지배를 받기까지 제국의 모든 것을 살핀다. <더숲·2만9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개천에서 복룡이 날다=시험에도 떨어지고, 치장에서 실패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우울하던 어린 용, 복룡이. 어느날 진정한 용으로 거듭나는 신비한 개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복룡이는 모험을 떠난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던 복룡이가 모험 끝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까지. 실패해도 괜찮아! 두려움을 이기기도 다시 도전할 용기를 주는 복룡이의 모험 이야기. <씨드북·1만3000원>

한 선과 선명한 색상의 대비, 귀여운 상상력이 마치 애니메이션과 같은 생동감을 전달한다.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담은 2025 볼로나 라가치상 수상작. <주니어RHK·1만6000원>

▲미스터 캣의 어느 날=어느날 아침, 문밖을 나선 미스터 캣이 펼쳐보이는 행복한 마법. 텅 빈 세상에 하나 둘 피어나는 꽃과 나무, 귀여운 동물 친구들까지. 간결

▲떨기는 모두 귀여워=떨기는 모두 모양이 다르지만, 모두 귀여워!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학급 발표회에서 용기를 내 도전하고, 위험에 닥친 친구를 돕고... 톡톡 튀는 아아와 친구들의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이야기를 따라 한발씩 성장하는 자신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스픈북·1만4500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네 명의 성장기

청년 녹두 이광재 지음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전환에 가장 큰 변곡점이었던 민중운동이다. ‘녹두장군’ 전봉준은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로 봉건제도 타파 외에도 보국안민, 적양적왜를 주장했다. 당시 동학에는 전봉준 외에도 그와 함께 했던 시대의 선각자들이 적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네 사람의 성장기를 담은 장편이 발간됐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이 천착해왔던 이광재 작가가 최근 ‘청년 녹두’ (한국농정)를 펴내며 동학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전봉준 평전 ‘봉준이, 온다’를 발간한 바 있는 이 작가는 최근 전복 정읍시가 시상하는 ‘제15회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

기도 했다. 이번 작품은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1876년 강화도조약 등 시대적 격변을 모티브로 서사를 다룬다. 당대뿐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겪어야 했던 ‘양(洋夷) 문제’를 깊이있게 탐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가의 의식 속에는 근대의 양요문제는 현대에도 작용하는 오늘의 현실문제라는 인식이 드리워져 있다. 양요와 양의를 대하는 관점이 사뭇 비판적이면서도 깊은 것은 그런 연유다.

이 작가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보국안민과 더불어 제출한 적양적왜의 알맹이는 당대에도, 그 이전에도 선학들에 의해 활발히 논의되었거니와 이제 다시금 새겨보는 것은 단순한 복고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사의 처음 부분은 구한말의 위정적사와 맞물리는 잔반 송진사가 소년 녹두의 스승이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음으로 필살이 병인양요에 참여해 싸우는 이야기가 소개된다.

국난에 처한 조선을 위기에서 구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년 녹두와 일행은 조선 지배이념인 성리학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다. 소설은 이처럼 동학혁명농민 지도자로 활약했던 전봉준의 젊은 날 이름 병호, 김필상(김덕명), 김기범(김개남), 송희옥 등이 사상형성을 도모해나가는 이야기를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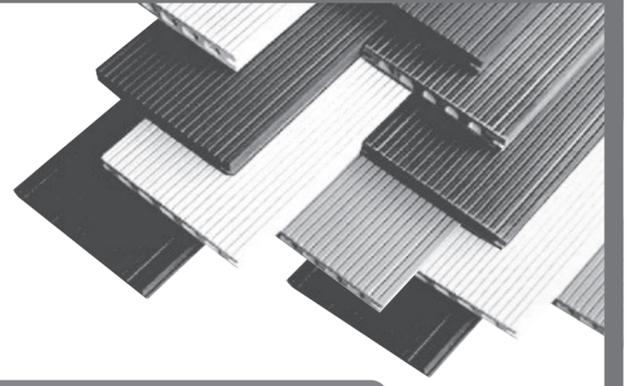
임우기 문학평론가는 “청년 녹두’는 민심과 조화의 뜻을 깨치고 터득하면서 마침내 탈근대의 ‘개혁신설’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딘 뜻깊은 소설작품이라 할 수 있다”고 평했다.

동학연구가인 박맹수 원광재 전 총장은 “전봉준과 동료들의 젊은날에 대해서는 그간 알려진 바가 별로 없었지만 역사적 실재를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이 씨줄 날줄로 엮여 불안전성을 벗겨 되어 다행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광재 작가는 ‘녹두꽃’에 단편 ‘아버지와 딸’을 발표하며 창작활동을 시작했으며 장편 ‘나라 없는 나라’로 제5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했다. 단편집 ‘녹두가 송곳니를 쫓을 때’와 장편 ‘수요일에 하자’ 등을 펴냈다. <한국농정·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